

우리의 시각으로 정리한 한국의학사

고희 맞아 세권의 저서 펴낸 기창덕 박사

“진료하는 일과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 집필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최근 의학사에 관련된 3권의 저서를 펴낸 소암(素岩) 기창덕(奇昌德) 박사(70, 치과 전문의)에게 집필은 ‘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이다. 병원문을 닫은 후 관련자료들로 가득한 집필실에서 책과 씨름하는 것이 그의 여가이자 휴식이었던 셈이다. 일껏 보기에 도 방대한 양의 이번 저서들을 보면 기박사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 저서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각기 해당 분야의 초석이 되는 학문적 성과물이라는 데 있다. 국내에 서양의학이 들어온 이후 우리의 의학사나 의학교육사는 일제에 의해 정리된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통분한 기박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한국의 의학사를 정리한 책을 집필하리라 마음먹었고 십여년의 작업끝에 고희를 맞는 올해 그 열매를 세상에 내놓은 것.

일제에 의한 의학교육사 바로잡아

“의학교육사 부분만 보더라도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초기 의학교육의 역사나 의학교 설립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기술된 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치와 명칭까지 틀린 역사를 그동안 우리는 여과없이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는 《한국근대의학교육사》(아카데미아)를 집필하기 위해 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설세없이 드나들면서 실제자료들과 1차 문헌을 찾아헤맸고, 당시의 신문기사와 각 학교에서 기록해 놓은 학교일람 등을 총독부 관보와 대조하면서 사실여부를 가려 정리했다. 그러기를 14년, 불모의 늪에 빠져 있던 근대의학교육사 연구에 뚜렷한 결실 하나를 이뤄내기에 이른다.

“서양의학교육의 효시를 지식영이 중두학을 이수한 때로 보고, 그때부터 분단 초기까지의 시기에 한국인 의학도가 공부했던 모든 교육기관의 생성·발전과정과 한국인 의학도의 연구활동을 살펴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는 초창기 의학교육기관이었던 세브란스의전,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 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평양



의학강습소 등의 창설과정과 발달사를 비롯, 의학교육에 힘쓴 외국인을 포함한 선각자들의 업적까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각 교육기관의 학위취득 명단까지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기박사가 이번에 증보판으로 내놓은 《한국치과의학사》(아카데미아)는 1987년 출간했던 《한국치과의학사·상》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으로 선사시대부터 1994년까지 치과의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치과학은 인류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치아가 아픈 사람은 있었고, 그것을 치료하는 나름대로의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로 특이 의학은 현실만 가지고는 그 위상과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아는 일은 의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개론입니다.”

이 책에는 선사시대 인골에 붙어 있는 치아를 통해 당시의 식생활, 치아질환 등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문헌이 남아 있는 시대로 넘어와서는 당시의 문헌작품에서 치아에 관한 언급한 내용을 추적해 치아의 질병과 치료법, 치아건강에 대한 당시 상황과 사람들의 인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기박사가 함께 엮어낸 《의학·치과



기창덕 박사.

의학의 선구자들)(아카데미아)은 대한치과 의사 협회지에 2년6개월 동안 연재했던 여러 의학자들의 글을 묶은 것으로, 의사라는 직업의 발생과정과 종사자들의 노력과 결실을 통해 의술의 뿌리를 더듬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을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도 그 흔한 온천 한번 기본 적 없고, 마음먹고 소풍 한

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국내 의학사에 관한 자료를 찾는 일에도 시간이 늘 모자랐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될 작업

기박사는 동시대를 살아온 다른 사람들과 달리 컴퓨터에 능통하다. 그의 집필실에는 스캐너까지 갖춘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고, 그 자신 컴퓨터의 효율성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수많은 자료를 복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자료를 비디오로 촬영한 다음 화상을 컴퓨터의 기억장치 속에 담아내는 흔치 않은 방법을 실용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컴퓨터를 활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가 계획한 많은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시간절약’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술은 《의료회사》를 비롯해서 4가지 정도입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할 건강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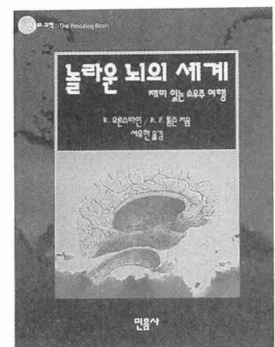
화제의 책

경이로운 생명현상, 뇌의 세계 오른스타인 외 지음 《놀라운 뇌의 세계》

뇌는 인간만이 지닌 경이로운 생명현상이다. 뇌의 크기는 포도송이만하고 무게는 양배추통만하다. 먹고 자는 본능적 행동과 예술·과학의 창조행위, 희망과 절망 또한 뇌 안에서 이뤄진다.

《놀라운 뇌의 세계》(서유헌 옮김)는 이 놀라운 인간의 ‘뇌’를 뛰어난 상상력으로 여행한다. 뇌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고,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가, 뇌의 기억구조와 우측 내 좌측뇌, 사람마다 다른 뇌의 특징을 환상적인 삽화와 함께 보여준다.

인간의 뇌에는 약 천억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회로는 우주의 별들만큼이나 많다. 또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차곡



차곡 포개져 이뤄진 오래된 집과 같다. 저자들은 이 복잡함과 신비에 쌓인 뇌의 모양을 신경해부학의 새로운 연구결과에 바탕해 살펴본다.

특히 삽화로 뇌의 각 부분별 모양을 표현한 ‘그림여행’ 3편도 뇌의 세계를 흥미롭게 안내한다. (515-2000)

민음사/A4변형/188면/8000원